

『흔적』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585장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씀 갈라디아서 6:11-17

갈라디아서 6:11-17 (NKRV)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의 키포인트 -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믿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중세시대 유럽 인구가 1억명 정도 되었을 때 성직자가 5백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수도사와 수녀들의 수가 150만명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수도원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고 와인을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면서 문제는 심각해 졌습니다.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이 ‘큰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아마누엔시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편지나 문서는 이 대필자를 통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대필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부분은 바울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의 마지막 부분을 ‘페로라치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편지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친근함을 느끼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인 율법과 할례에 빠져 헛된 신앙을 좇아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새창조)이 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을 개간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신앙은 점점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 첫 번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173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시무하던 노스햄프턴 제일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750년이 되었을 때 노스햄프턴 교회의 성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쫓아냅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헛된 영광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톡브릿지라는 인디언 마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노스햄프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시골마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과는 관계없던 인디언들이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노스햄프턴 제일교회와 스톡브릿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일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톡브릿지 교회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한 성도가 교회의 곳곳을 안내하고 소개해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함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후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정치지도자, 대학 총장, 의사, 법률가 등의 사회 지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의 후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17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일에 교회나오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고생도 하면서 생기는 흔적을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조나단 에드워즈가 겪었던 어려움의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살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생 해 보셨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살면서 경험했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 봅시다.
2.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인지 구역식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3.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흔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해 봅시다.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육체와 정신의 고통, 경제적 결핍과 고통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3.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